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03 호 현대불교
2020년 7월 29일(음 6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우리가 살림살이하는 것이 전부 공부하는 과정이며 바로 보람인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이렇게 이 도량에 와서 공부 아닌 공부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 것을 볼 때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자세가…, 이런 말이 있죠. "서까래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리고 어머님 전 살을 빌려 이 내 일신 태어나니 공이로세, 공이로세, 공이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이라는 그 뜻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공이라는 이치만 알았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한 발짝 떼 놓으면 고정된 관념이 없고 고정된 걸음이 없고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어서 그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인생의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늙으면 죽고 태어나 자라면 젊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젊었으면 늙을 거를 준비하고 늙었으면 또 젊을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그 모습을 다시 진화시켜서 바꿔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자기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에 의해서 차원이 얼마만큼, 이차원이냐 일차원이냐 삼차원이냐에 따라서 그 진화는 모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습에 의해서 남을 지배를 할 수도 있고 남한테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의 자세가,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는 것도, 남에게 착을 둔다는 것도 욕심입니다. 착을 두는 것도 욕심이지마는 모든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 그것은 올바로 해야 착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지 올바로 못 한 채 욕심을 부린다면 그건 착이고 욕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해라. 올바로 해라." 하는 것은, 내 경우를 볼 때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물 안쪽에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해 왔습니다. 아니, 아마도 나이 어려서부터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여러분처럼 공부라는 생각도 없고 공부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를 보고 또 형제를 보고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또 짐승을 보고 풀들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하염없이 흘러 내려가는 그 물은 내 눈물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 얻다가 하소연을 할 데가 없었습니다. 얻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기에 내 마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서까래에다 꼭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 서까래는, "서까래의 공덕" 이러는 거는, 서까래는 자기의 그 자성의 주장자라고 볼 수 있다면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와 같기도 하고 씨와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 내는 그 생각이 바로 생각 내기 이전 그 심봉에 의해서, 반드시 자기는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받고 그래서 인생이라고 이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뼈를 빌린 아버지나 살을 빌린 어머니나 또 영원한 씨인 주장자의 그 불성이나, 그 불성이 아니었더라면 뼈도 빌릴 수 없고 살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법의 스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참자기라고도 볼 수 있고, 부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이르러서 이 모습을 두고 착을 둔다 하는 것은 역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부터 착이 되고 착이 됨으로써 그게 끊이지 않는 인연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연줄은 마음으로 인연을 끊지 않는다면 절대로 물질로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얽히고설키고 해서 살아나오면서 그 인연줄에 의해서 자기가 빠져나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붙드는 그 상대방도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인연줄에 얽히고설킨다면 양면이 다 죽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 하면 사는 길이 있듯이 모든 것을 맡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어찌 사랑이 없고 또 도의가 없고 의리가 없고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거죽으로는 천연덕스럽게 하면서도 마음과 더불어 착, 욕심, 그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사랑한다면 무궁무진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고도 변치 않는 사랑이 되고 영원한 사랑이 되고.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에다 착을 두지 않고 모습으로 인해서 울고 쓰라려하지 않습니다.

벌써 한 8년 전 얘깁니다마는, 사랑을 하기에 남편에게 돈을 다 들이대 주기도 한 그런 첩도 있었으니 그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큰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한데 자식들은 7남매나 낳아 놓고 회사가 망하니까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니 할 수 없이 돈 많은 여자를 택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돈 많은 여자가 돈을 많이 들이대 주고 큰집도 다 살림살이해 주면서 시봉을 하다가 그만 돈을 다 없애고도 또 딴 사람 거를 대 주었습니다. 대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남편을 사랑하기에 다시금 큰집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유서를 써 놓고서 자기는, 자기가 없어져야만 그 돈의 출처를 자기가 안고 갈 테니까 고만 유서를 써 놓고 가 버렸습니다.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자살을 할 때 그 사람이 유서에 써 놓기를 뭐라고 써 놓았느냐 하면, "인생은 공(空)이로세.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길에 내가 남의 입초시에 오르내리기를 좋아한 것은 아니나 나는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그 식구들을 내 아픔과 같이 생각했노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식구들을 다 위해서 나는 가노라." 이렇게 유서를 써 놓고선, "형님! 형님이 나이고 내가 형님이니, 형님! 아무쪼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 마음을 넓게 쓰시고 사셔야 나도 보람을 느끼고 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선 유서를 써 놓곤 간 일이 있습니다. 저 원주에서 있었던 얘기죠.

그런 사람도 있듯이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면 물질로서 사랑을 하지 마세요. 내 예를 든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그 서까래를 붙잡고, 자기 불성의 기둥을 붙잡고 거기에 하소연을 하고 한번 울고 나면 속이 후련했거든요. 꽁치꽁치 뭉쳤던 것도 그걸 붙잡고 울고 나면 다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바깥으로 돌질 않은 겁니다. 바깥으로 돌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는 반면에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많습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의 그 이치라든가 상식의 문제, 또는 우리가 모두들 "과학, 과학" 하는데 과학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풀 이파리 하나를 봐도, 벌써 이렇게 기울어진 것만 봐도 '아휴! 너도 나와 같구나.', 비틀어진 것만 봐도 '너도 나와 같구나.' 이러고 불쌍히 생각이 들면서 간절히 그저 둘이 동시에 하나가 돼 버리곤 하나가 돼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을 줘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내쫓고 고난을 줘도 나는 아버지의 탓을 절대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은 다 공부를 시키고 나는 안 시켜 줬어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심입니다, 이거는.

그것은 모든 것이 내 탓이지, 내가 이 세상에, 즉 서까래 공덕으로서 뼈를 빌리고 살을 빌려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찌 그 탓을 하겠습니까? 인연 따라서 만났거늘, 인연 따라 만나서 살다가 헤어지는 거는 일찍 헤어지고 나중 헤어지고 그것뿐이지 무엇을 탓을 하겠습니까? 마른자리 진자리 바꿔 가면서 뉘어 주고 물 떠다 세수시켜 주고, 배고프면 밥을 떠 넣어 주고 젖을 준 것만 해도 고맙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낳고 싶어서 낳았느냐고 이렇게 막말들을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합디다마는 그것은 인연에 따라서 오는 거지, 억지로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이 진리고 순리적이고 바로 자동적인 것을.

그러니 스님들이 사는 도량에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화목을 도모하고 조화를 이루려면, 옛날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지마는 화목을 가져오는 것도 내 마음에 따라서 화목을 가져오는 것이지, 내 마음이 아니라면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벌써 육신에 착을 둔다면 절대로 이건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분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걸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주장자의 그 주인공에서, 모든 것은 다 지수화풍의 이치에서 일어나고 순서 없이 일어나는 것을, 사계절이 일어나듯이, 그저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가라앉히지 바깥

☞ 18면으로 계속